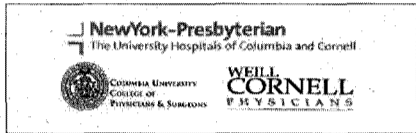


# 뉴욕 - 프레스비테리안 종합병원

“America's Top Doctors”로 불리는 병원  
1983년 세계 최초 어린이 심장이식 성공  
미국 유일의 두 개 아이비 리그 의과대학 보유



### ■ NYP 병원 입원실



New York Weill Cornell Medical Center  
Greenberg VIP 입원실



Columbia Presbyterian Medical Center  
McKeen VIP 입원실

뉴욕-프레스비테리안 병원은 1997년 코넬 의과대학의 뉴욕 병원과 컬럼비아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인 프레스비테리안 병원이 통합하여 이루어진 병원으로서 미국에서는 유일하게 두 개의 아이비 리그(Ivy League) 의과대학을 보유한 의료기관이다.

2003년도 유에스뉴스&월드리포트(U.S. News & World Report)지의 미국 내 의료기관 평가에 의하면 이들 병원의 임상 분야는 뉴욕지역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능한 의사(Best Doctor)를 가장 많이 보유한 병원이기도 하다.

### ■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종합병원은

뉴욕에서 가장 큰 병원으로 6,200명의 의사, 2,710개의 병실, 12,40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연간 80,000여명의 입원환자와 1백만명의 외래환자가 병원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유럽, 남미 등 전 세계에서 수만명의 해외환자가 진료하고 있으며, 이들 해외환자들을 위해 인터내셔널센터의 World-Class 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의료계에서 “America's Top Doctors”라 불리는 병원으로 유명 전문의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배출한 명문병원이다.

### ■ NYP 종합병원의 오랜 역사

미국 동부 뉴욕 맨하탄 소재로 1997년 The New York Hospital과 Presbyterian Hospital간의 전략적 합병으로 설립됐다.

1771년 설립된 The New York Hospital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미국에서 두 번째로 가장 오래된 병원이다. 미국 동부 명문 아이비 리그 8개 대학 중 하나인 컬럼비아와 코넬의 대학병원으로 유명하며, New York Will Cornell 메디칼 센터와 Columbia Presbyterian 메디칼 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 ■ NYP 종합병원의 뛰어난 의료성과

1983년 세계 최초 어린이 심장이식에 성공했으며, 세계 최초 혈액검사로 전립선 암을 발견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다. 1961년 세계 최초 레이저를 통한 안구 치료법 시행과 미국 최초 Non-Scalpel 정

관 절제 수술 시행, 그리고 1955년 Dr du Vigneaud이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다.

### ■ NYP 종합병원의 우수한 의료시설

William Randolph 화상 치료센터, 복합 치료 센터(소화기질환, 유전자 치료, 최소 접근 외과술, 예방의학 등), Trauma Center (외상성 증상 치료센터), Woman Health Center (여성 질환치료 센터), AIDS Center 등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첨단 의료시설로 각 국가의 협약을 통해 첨단 의료기술을 보급하고 있다.

### ■ U.S. News & World Report 선정 “America's Best Hospital”

- ▶ 미국 내 병원 종합평가순위 11위
- ▶ 미국 내 정신의학분야 2위, 신경의학분야 4위
- ▶ 미국 내 소아과 분야 4위
- ▶ 미국 내 신장질환분야 5위, 비뇨기과분야 10위
- ▶ 미국 내 심장의학분야 11위, 안과분야 18위

## 한림대의료원과 작년 교류협약체결

### 미국 내 3·4차 진료 우선 제공기관 지명

한림대의료원은 지난 2004년 9월 미국 명문사학 컬럼비아대학 및 코넬대학의 모체 병원인 뉴욕-프레스비테리안 병원(New York-Presbyterian Hospital)과 상호 교류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념하는 국제학술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치른 바 있다.

뉴욕-프레스비테리안 병원, 컬럼비아와 코넬 의과대학과 초청인사들은 심포지엄 행사의 규모와 짜임새 있는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한결같이 적극적이고 활발한 교류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확대하길 희망하고 있다.

양 기관간의 국제교류 협약서 “제5조 우선제공자 지위(Referred Provider Status)”에 의해 상호 호혜적인 차원의 환자진료 의뢰와 관련하여 “NYPH는 미국시민권자가 NYPH를 통해 한국에서 진료 받기를 원할



경우 한림대의료원 산하병원을 한국내 우선 진료 제공기관으로 지명하고, 한림대의료원도 환자가 미국에서 진료 받길 원할 경우 NYPH, Columbia, Cornell을 미국 내 3차 및 4차 진료의 우선 제공기관으로 지명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